멕시코 국빈방문 공식환영식 답사

존경하는 비센테 폭스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각하 내외분과 멕시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인 이주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멕시코를 국빈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멕시코는 지금 중남미를 넘어 아·태 지역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적 극적인 개방정책으로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모범적 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귀빈 여러분,

한국과 멕시코는 국교 수립 이후 40여 년 동안 중요한 우방이자 경제 파트너로 서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 기업의 멕시코 투자가 43%나 늘어나는 등 교역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두 나라의 협력증진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 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환영에 감사드리며, 우리 국민이 보내는 우정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